



법륜종 '태평양전쟁 희생자·한일우호증진 위한 영산대제' 현장 가르침 아래 상생의 시대로...

한국에서 건너간 800여 법륜종 신도들이 두 손 모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천도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영산제가 봉행된 일본 후쿠오카 소재 남장원은 고야산 진언종의 본산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청동 석가열반상으로 유명한 곳이다.

“정치적 문제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양국의 불교인이 앞장서 과거청산과 양국 우호증진을 위해 앞장섬으로써 세계인류가 부처님 자비광명 속에서 한 가족 되는 날을 앞당길시다.”

11월 2일 세계 최대 청동 석가열반상으로 유명한 후쿠오카 남장원에서 봉행된 한국불교 법륜종(종정 정각)의 ‘태평양전쟁 희생자와 한일우호증진을 위한 영산대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서 건너온 800여 사부대중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마음을 모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총무원장 창법 스님은 봉행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대승불교의 맥락을 함께하고 있는 이웃국가”라며 “개인인 국가의 아픔을 버리고 상생의 시대를 열자”고 말했다.

종정 정각 스님은 법어에서 “내가 어쩔다 하는 생각을 떠나면 이것이 곧 부처다”며 “이 자리에 모인 불연(佛緣)이 지중하니 참석하신 모든 중생과 영가들은 다함께 불도를 닦아 생사윤회의 사슬을 끊자”고 말했다.



석가열반상 앞에서 바라춤을 추며 중사이온 의식을 기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중사이온을 시작으로 시령·대령·상단권공 등의 전통 영산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초대종정 금암 스님을 비롯 남장원 부주지 하야시 가꾸류 스님과 태연 스님 등이 참석했다. 하야시 가꾸류 스님은 “장건 이래 가장 많은 손님이 방문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장원 측은 방문객의 규모에 놀라 부러부러 한글 팸플릿을 만드는 등 손님맞이에 분주했다는 후문.

한편 이에 앞선 11월 1일에는 부산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출발, 나가타항을 향한 배편에서 유주무주 고훈의 넋을 천도하는 ‘현해탄 수록제’를 봉행했다. 이번 수록제에서는 금암 스님이 고행에도 불구하고 몸소 축원을 올려 선실을 매운 대중들의 마음을 숙연케 했다.

등참자들은 현해탄에서 봉행된 수록제에 동참한 인연으로 모든 영가가 고훈에서 벗어날 것을 염원했다.

행사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불교성지를 돌아왔다. 글·사진/일본 후쿠오카=박익순 기자



현해탄위에서 봉행된 수록제. 고훈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배 안에 가득하다.

인터뷰

■ 법륜종 종정 정각 스님



“이 많은 사부대중이 한 자리에 모여 왕생극락을 발원했으니 이국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한국인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졌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지난 2000년 법륜종 종정에 취임, ‘승단의 울이 바로서야 불교가 산다’는 신념으로 계율 정비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정각 스님.

정각 스님은 “법륜종 종단의 역사가 짧긴 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며 “부

“종단 위상 정립 통한 흥포에 진력”

처님의 진리와 생활이 둘이 아닌, 생활불교를 구현하는 데 법륜종이 제몫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800여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바다 건너 일본 땅까지 와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법륜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정각 스님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각 스님은 “안으로 종풍을 다잡고, 밖으로 법륜종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법륜종의 위상 정립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 총무원장 창법 스님



“아직도 일본에는 수십만 구의 조선인 유골이 있습니다. 이들 유골이 하루속히 고국 땅을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1988년 법륜종 창종 이래 최대 국제행사로 기록될 수록제 및 영산제를 봉행한 총무원장 창법 스님. 유골 봉환이 당장 이뤄지지 못하는 만큼 넋이라도 위로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과거 청산 위해 다각적 교류 모색”

창법 스님이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골 봉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3년.

스님은 “도쿄에 있는 일본 정토종 사찰 우천사(祐天寺)를 방문해서 1140여구의 유골이 봉안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때 이들의 송환을 위해 우리 종단이 발 벗고 나서야한다고 다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륜종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청산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불교와의 다각적인 교류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창법 스님은 밝혔다.

박익순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칙

요일	시간	법외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금강경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동선회	주제별특강

◆ 고암대중사생신재

오는 11월 16일 화요일(음력 10월 5일)은 고암대중사의 탄신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만

우리절에서는 이를 앞당겨 오는 11월 14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생신제를 봉행합니다.